

“뉴질랜드”의 環境保全 機構와 그 機能

安 奉 洙

I. 머리말

뉴질랜드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나라 전체가 하나의 공원이다”, “면적이 많다”, “사면의 바다가 너무나 맑다”, “거리가 깨끗하다”, “식물이 다양하다” 등등의 감탄사를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를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도 “정말 지상 낙원이다!”, “지상천국이다!”하는 표현이 서슴없이 튀어 나온다.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수준으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으면서도 뉴질랜드 사람들은 환경보호운동에 한결같이 열을 쏟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놀라움과 부러움이 뒤섞인 이 의문에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필자는 평소 뉴질랜드의 환경보호정책을 대강이나마 훑어볼 기회를 갖고 싶었다.

그러던차에 비즈니스 관계로 뉴질랜드를 드나드는 기회를 갖게 되어 뉴질랜드 환경보호운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 중에서 참고 될만한 부분을 발췌, 여기에 소개한다.

이 글이 뉴질랜드의 환경보호운동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직면한 자연환경보호운동 방향의 모색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II.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기구와 그 역할

뉴질랜드 정부기구인 환경보전부(Department

of Conservation)의 사명은 현세대와 차세대에게 뉴질랜드의 자연 및 역사적인 유산을 보전 유지해주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① 뉴질랜드의 자연 및 역사적인 자원을 보전하는 일

②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뉴질랜드의 자연보전에 대한 인식을 국내외적으로 각성시키고 나아가서 자연보호운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도덕성을 함양하는 일

③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뉴질랜드의 자연 및 역사적 자원을 선별하여 보전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일

이상과 같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 시민들은 제각기 여가를 내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일등 각종 자연보호운동에 협력한다.

또한 뉴질랜드의 환경보전부(D.O.C)는 환경보호운동사업을 위하여 여러 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와 해안을 보호하는 지역단체들이다. 식수(植樹)계획사업에 있어서도 각급 학교 및 지역단체들과 협조하여 멸종위기에 있는 품종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업체들의 후원을 받기도 한다.

환경문제란 매우 복합적인 것이어서 환경보전부의 일도 국지적(局地的)인 면에서부터 국제적인 면에 이르고 있다.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의 보호

뉴질랜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과

동물의 본향(本郷)이다. 즉 너도밤나무의 숲, 카우라 나무, 뉴질랜드토착 개구리, 키위새, 카카포 토양달팽이 등등이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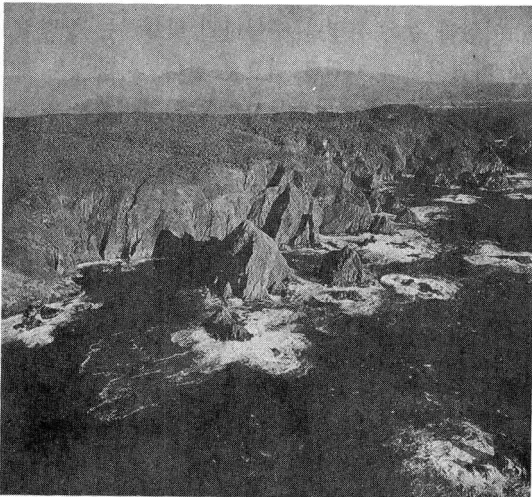
따라서 보호와 원상회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특수 육종사업을 전개하여 고양이나 쥐 또는 다른 동물에게 희생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종을 연안도서로 옮겨주는 일을 한다. 이리하여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식물, 곤충 및 동물들의 전체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해안지역 보존

해안지역과 해양의 생태계가 공해와 과도한 이용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진 자연환경을 꾸준히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부는

- 해안지역의 공해를 줄이는 사업을 벌인다.
- 해안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보다

깊이 효과적인 사업계획 및 관리제도를 수립한다.



국립공원 피오르드랜드 해안

- 해안자원의 현명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정책을 주도할 뉴질랜드 해안정책 지침서를 준비한다.

• 바다의 포유동물, 바다조류, 기타 뉴질랜드 해협에 서식하고 있는 거북이 등을 보호한다.

• 뉴질랜드 해안자원의 기록을 계속 확보한다.

• 이위(iwio)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의 마을단위)와 그밖의 이익집단들과 협조하여 그 해안주변에 해상보호지역을 설치한다.

• 수산자원 보존과 바다의 생태계를 잘 보전한다.

카우파파 아타와이(Kaupapa Atawhai) “미래에 맡겨두라 식량이 부족할 때가 오는 그 날까지” 뉴질랜드 원주민들로 하여금 자연보호문제에 발언권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도록 하기 위해 부족공조체제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자연보전부 당국에서는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원주민과 원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없이 자연보호운동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뉴질랜드의 보호지역은 방문객에 광범위한 야외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레크리에이션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예컨대 뗏목놀이를 비롯해서 뱃놀이, 사진촬영, 자연숲속 걷기, 피크닉 등이다.

남녀노소의 체격에 알맞는 여러가지 시설과 서비스 등이 환경보전부 당국에서 직접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피크닉 장소, 캠핑장소, 간이숙박소, 비지타센타(탐방자 안내소)와 비지타 프로그램 등이 곧 이런 시설과 서비스에 포함된다.

한편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환경보호 준수사항(Environmental Care Code)을 지켜서 환경을 보호하도록 계몽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부에서는 스키장 경영권이나 산책로의 안내, 도시락 여행, 기타 사업권을 개인 기업에 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업권 양도에서 오는 수입은 보호지역에서의 레크리에이션의 기회를 넓히는데 사용된다.

보호지역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병충해

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잡초를 없애야 한다. 화재와 침식 및 제반공해를 예방해야 하며 해변의 청소작업만을 그 지역사회에 조직해야 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서는 그 지역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룩해야 한다.

생태학적 조사업무

DOC는 뉴질랜드 전역의 자연보호지역 사업계획하에서 광범위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조사의 목적은 초지(草地)지역에서부터 늪지대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자연환경의 특성을 발견하고 보호하는데 있다.

강, 호수 및 습지 보호

담수(淡水)는 뉴질랜드의 가장 큰 자연자산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담수는 날로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천연으로 이룩된 아름다운 강과 호수를 보존하고 어류와 그 서식처를 보호하며 나아가서 수질의 오염을 방지하고 국토의 사방과 홍수 및 기타 위험사항을 예방 관리하는 것이 DOC의 중요활동이기도 하다.

역사의 보존

뉴질랜드 유적지재단은 DOC 산하기관으로서 뉴질랜드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일을 한다. 즉 마오리 석화(石畵), 고고학적 유적지, 마오리 유적지 및 역사적 건물 등을 보존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적지를 돌본다는 것은 오늘의 뉴질랜드의 문화가 옛사람들과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연유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참여

지역사회가 자연보호운동을 활발히 지원함에 따라 뉴질랜드 자원보호의 막중한 책임을 일반인들이 분담하는 일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비지타프로그램, 홍보물의 전시 및 교육활동 등이다. 자연보호 자원봉사대 및 뉴질랜드 자연보호단은 자기네 경험을 살려 나무심기



뉴질랜드 야생지역에서 자연보호단의 활동모습

운동과 심은 나무 가꾸기에 앞장선다. 이러한 식수운동과 나무가꾸기 운동은 국민학교에 들어가 기전 유년시절부터 전개된다.

지역사회가 각 해당지역에 관한 DOC 정책결정에 발언권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DOC의 지역관리 정책전략은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환경문제의 국제화에 대한 대응(對應)

지구의 환경문제와 자연보호문제에 대한 각성은 근래에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열대지방의 산림이 산성비로 인하여 파괴되고 오존층이 소멸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지구의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환경보전부에서는

- 저어망식 어로를 반대한다. 그리고 철에 따라 이동하는 조수의 보호 및 멸종위기의 수종에 관한 불법국제거래의 금지 등의 국제문제에 관하여서는 국제적인 자연보호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 여러가지 환경문제의 국제회의에 뉴질랜드 대표를 파견한다.

- 남태평양지역의 이웃 나라와 긴밀히 협조하여 환경보호 운동을 전개 촉진한다.

환경보호의 과학화

착수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정책과 사업추진계획은 반드시 건전한 지식과 조사연구

의 결과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 뉴질랜드 환경보전부에는 조사실을 설치 운영하며 그 연구과제는 육지와 바다를 포함한 사회적, 생물학적 고찰 연구이다. 이러한 조사는 대학교 교수나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사연구에 근거하여 개인적으로나 또는 서면보고서를 통하여 환경부서에서 일하는 관리인들에게 조언을 부단히 해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Ⅲ. 뉴질랜드의 보존 유산

뉴질랜드 환경보전부에서는 전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광활한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국립공원, 해상공원, 산림공원, 농장공원, 천혜의 들판 등을 관리한다. 뉴질랜드에는 일천개 이상의 특성을 지닌 보호지역이 있다.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2세 국립재단과 뉴질랜드 유적지재단과 같은 독립된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 소유토지에 위치한 자연적 가치가 있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을 보호관리한다.

뉴질랜드의 보호 유적대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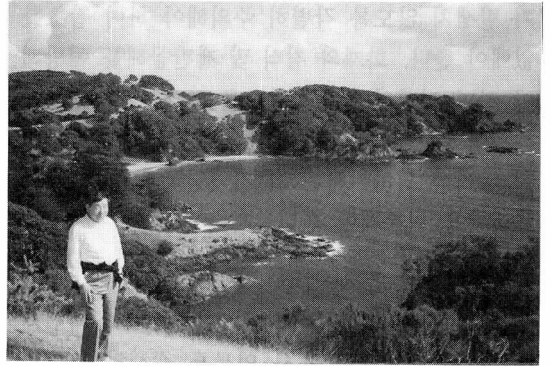
① 지구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식물들과 동물들

②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과 땅의 모양새

③ 역사적 의미가 크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장소

④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립공원 즉 세계 2대 유적지에 포함되는 통가리오(Tongariro) 국립공원과 테 와히포우나무(Te Wahipounamu)를 비롯해서 4대 국립공원 즉 피오드랜드(Fiordland), 마운트 아스피링(Mount Aspiring), 마운트 쿡(Mount Cook), 웨스트랜드(Westland) 등

⑤ 멸종위기에 있는 조류와 바다의 포유동물들의 피난처로 국제적 중요성을 지닌 뉴질랜드 도서지방의 자연보호지역



1993년 4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근처의 자연환경 보존지역인 와이히키(waiheke)섬을 방문한 필자.

Ⅳ. 환경보전부의 조직과 과제

뉴질랜드의 환경보전부가 맡은 과제의 대부분은 뉴질랜드 전역에 산재해 있는 현장 사무소와 14개 환경보존지역 사업소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국가적인 정책수립이나 조사업무는 웰링턴(Wellington)에 자리잡고 있는 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 다른 여러가지 기관들 즉 뉴질랜드 환경보전국, 17개 지역 환경보전위원회, 유적지 재단 및 엘리자베스2세 국립재단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사회의 각계 각층의 이익집단 대표들이 참가하여 자연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하므로써 크게 실효를 거두고 있다.

參考文獻

1. "TRADE IN ENDANGERED SPESIES : A CONSERVATION PROBLEM."
2. "PROBLEM PLANTS AND ANIMALS."
3. "OLD MANS BEARD MUST GO."
4. "THE CHANGING LAND : A SOURCE BOOK FOR TEACHERS."

[筆者：本會理事・ABS國際商事 代表理事]